

넷플릭스 '솔로지옥3' 설렘 잃고 재미 없고... 그 중심엔 이관희

시즌1·2와 다른 결 "나는솔로지옥"
MC 홍진경·텍스 반응 보는 재미 쏠쏠

넷플릭스 '솔로지옥3'는 설렘을 잃고 재미를 얻었다. 프로그램이 거듭될수록 인기가 시들어지기 마련인데, 시즌1·2(2021·2022)와 확실히 다른 매력으로 시청자를 끌어당겼다. 그 중심엔 농구선수 이관희(35·장원 LG 세이커스)가 있다. 남다른 자신감으로 여성들의 호감을 샀지만, 갈팡질팡하고 매너없는 행동을 보여 '가관희' '관족이' '관희지옥' 등의 별명을 얻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이관희 같은 남자만 안 만나면 된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그래도 '욕하면서 본다'고 하지 않는가. 시즌1·2 누적 시청시간 6000만대에서 시즌3는 7000만대를 넘어섰다. ENA '나는솔로'는 자극적이고 낯 것의 매력이 강한데, 솔로지옥3가 '나는솔로지옥'이었다는 평도 많았다.

"관희씨는 솔로지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줬다. 현실에선 여러 사람이 모여 계속 데이트하고 선택하지 않으니까. 특수한 상황 속 행동이라고 보겠으면 좋겠다. 데이트 프로그램 목적 자체가 최종 선택 전까지 어떤 행동을 해도 응서 받을 수 있고, '나랑 가장 잘 맞는 여성이 누구일까?' 찾는 과정 아니냐. 어쨌든 데이트 프로그램 목적에 잘 부합했다. 최종선택 이후에 그러면 욕을 먹어도 짜지만, 그 전에 여러 사람을 알아보는 건 무죄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김재원 PD)

솔로지옥은 커플이 돼야 나갈 수 있는 섬 '지옥도'에서 펼쳐지는 데이트쇼다. 애초 이관희는 시즌2에 지원했지만, 훈련 기간과 녹화 일정이 겹쳐 출연이 불발됐다. "시즌3 할 때 연락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 다행이 비시즌 기간이라서 모실 수 있었다. 리얼리티에 걸 맞는 출연자였고, 여과없이 보여줬다"며 만족했다. 하지만 이관희의 솔직함을 넘어선 무례한 행동과 여성들을 어장관리하는 듯한 모습은 많은 비판을 샀다. 마지막까지도 최혜선(26)과 중간에 투입된 메기 조민지(26)를 사이에 두고 고민했다.

"관희씨가 캠프파이어 할 때 (최혜선, 윤하정, 김규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재, 재, 애'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다. 표현법도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말하는 걸 처음 봤다. 2명이어도 놀라는데 3명이었다. 보통 그러면 여성들의 마음이 돌아서

니까 '관희씨는 여기까진가 보다' '너무 경솔했다' 싶었다. 다음날까지 '왜 저래'라는 반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 자기 페이스를 끌고 가더라. 운동선수로서도 베테랑 아니냐. '그냥 저 자리에 있는 게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저런 페이스로 끌고 올 수 있는 매력이 있구나'라고 느꼈다."

시즌3는 유독 미인대회 출신이 많았다. 여성 출연자 6명 중 5명이 해당됐다. 윤하정(26)은 2021 전국춘향선발대회 속, 유시은(27)은 2022 미스코리아 선, 조민지는 2021 미스코리아 미, 김규리(28)는 2022 미스코리아 경남 미, 안민영(26)은 2023 미스코리아 부산 진 출신이다. SNS 사진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달라 이질감을 주기도 했다.

김 PD는 "미인대회 출신이라고 베네핏을 준 건 없다"며 "매력이 있어도 대중 노출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다. 미인대회 출신은 미디어 노출 거부감이 없고 매력도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최종 멤버가 되지 않았다 싶다. 물론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다. 다양성을 위해서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기준은 매력이다. 여성에게 어필할 수 있고, 솔로지옥 환경에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분을 뽑다 보니 미인대회 출신이 많아졌다"며 "비판을 견뎌야 하지만,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데이트할 때 '어떤 걸 궁금해할까?'라는 니즈라고 생각해 피할 수 없었다. '정면 돌파하자'는 마음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번에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비롯해 대학교, 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출연자를 섭외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했다"고 할 정도다. 해경 도움을 받아 캐스팅한 서해해양특수구조대원 박민규(34)가 대표적이다. 남성 출연자들은 모델 최민우(24)를 제외하면 모두 30대다. '남녀 연령대가 맞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1대 다(多) 인터뷰를 통해 이성으로서 매력에 느껴지는 분들을 찾았다. PD·작가 20~30명이 투표했고,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 캐스팅했다"며 "작년에 데이트 프로그램이 30~40개 나와서 이미 출연한 분들이 너무 많았다. 아쉽게 못한 분들도 많다"고 했다.

가장 기대한 출연자로는 박민규와 유시은

을 꼽았다. "민규씨 반응이 되게 좋았다. 피지컬도 좋고 직업도 멋있지 않느냐. 구조대라서 수염도 잘하고 VCR도 멋있게 나왔는데, 카메라 적응 기간이 길지 않았나 싶다"며 "인타뷰 할 때 날아다녔는데,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보수적으로 변했다.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 조심스러워 하더라. 당당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이 덜 비춰져서 아쉽다"고 귀띔했다. 유시은은 제작진과 인터뷰할 때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등장했다며 "통통 튀었는데 첫날 선택을 받지 못해 풀이 죽었다"고 했다.

윤하정이 열살 연상인 이관희와 티격태격하며 할 말 다하는 모습도 재미를 더했다. "관희, 하정씨의 첫 번째 전국도 데이트를 재미있게 봤다. 예측불가능한 흐름으로 진행됐고, 한 마디 한 마디가 톡톡 찔렀다"면서 "데이트 마지막에 하정씨가 '돌고 돌아 결국 나? 돌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결국 돌고 돌아 해선이 돼 하정씨가 그 주인공이 되진 못했지만, 표현을 재미있게 해줘서 인상에 남았다"고 회상했다.

조반에 윤하정은 고개를 당기고 매혹적인 표정을 짓곤 했는데, 모델 이진석(31)이 따라해 웃음을 줬다. "하정씨는 카메라를 의식하기 보다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캐릭터처럼 해서 좋았다. 오히려 카메라를 의식하면 수동적이 되고 주저하는데, 하정씨는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타고난 끼가 있는 것 같다"고 극찬했다. "실내에는 무인카메라를 썼다. 아무리 숨어서 찍어도 촬영 중이라는 건 변함없이 빨리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반에 카메라, 출연진이 낯설어서 있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빨리 카메라를 잊는 분들이 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MC 반응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다. 특히 홍진경(46)은 상황에 과몰입, 시청자 마음을 대변해줘 공감을 샀다. 시즌2 출연자인 특수부대 UDT 출신 텍스(28)는 시즌3 MC로 합류해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번 시즌은 유독 MC들과 시청자, 제작진 감상 포인트가 비슷했다. 그런 면에서 성공적이었고, 다른 시즌보다 유독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고 짚었다. "텍스씨는 솔로지옥뿐만 아니라 작년 연예계 전체에서 봐도 새로운 피였다. 기존에 본 적 없고, 어디에 가든 긴장 시키는 출연자라서 캐스팅했다"며 "MC들의 태율이 좋았다. 스튜디오안이 더 기억에 남기 쉽지 않은데, 여러 화제신이 나온 것 보면 그만큼 안타가 많지 않았나 싶다. 분량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VCR도 재미있어서 작용과 반작용이 나



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즌3에선 총 네 커플이 탄생했다. 이관희·최혜선을 비롯해 유시은·최민우, 박민규·김규리, 이진석·안민영이다. 네티즌들은 이관희와 최혜선의 SNS 사진 등을 증거로 들며 '실제 커플이 된 것 같다'고 추측했는데, 제작진은 말을 아꼈다. "현케(현실 커플)는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시기에 합의해서 커뮤니티 케이션해달라고 했다"며 "우리는 당연히 말을 줄이는 게 맞다. 결국 프로그램 끝나면 사적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즌2에서 텍스·신술기씨 서사는 설레고

부드럽지 않았느냐.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로 끝까지 가봤으니, 시즌3는 '완전 다른 결로 가자. 다 부수자'고 생각했다. 한국형 데이트 프로그램은 첫날 데이트를 안하고, 어색하게 인사 후 저녁 준비하는 게 클리셰처럼 반복됐다. 이번엔 첫날 데이트하고 바로 선택해 전국도를 가는 등 속도를 빠르게 했는데, 글로벌 팬들이 좋아해줬다. 시즌4는 우리도 기대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 시즌3는 '설렘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제2의) 텍스, 관희씨를 찾아서 설렘도, 재미도 있는 시즌을 만들고 싶다."

MZ 취향은 90~00년대? 아이들도 뛰어난 리메이크



그룹 에스파·라이즈 등 리메이크작 발표 MZ세대 아이돌의 1990~2000년대 조형

태지와 아이들은 가사를 제외하고 연주곡으로 4집 '컬백홀'에 수록하며 저항 의지를 표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은 서명 운동을 했고,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 폐지에 영향을 줬다. 이후 서태지가 보컬 버전으로 싱글을 발표했다.

에스파는 'SM 리마스터링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대유감'을 2024버전으로 선보이게 됐다. K팝 역사를 재조망하고 한국 음악 업계 성장에 기여하고자 SM과 유튜브가 함께 기획한 프로젝트다. SM 소속 가수들의 과거 곡을 후배들이 리메이크하는 방식이었는데, 서태지의 곡으로 프로젝트의 뒤를 잇는 것이 눈길을 끈다.

SM은 "한국 대중음악사적으로 의미 있는 인물과 곡의 리메이크를 하고자 했다. 서태지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이 필요 없는 인물이고, '시대유감'은 음악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모두 관통해 젊은 세대의 심경을 반영하는 메시지가 담긴 상징적인 곡"이라며 "그러한 곡을 4세대 아이돌의 대표로 꼽히는 에스파가 재해석한다면 매우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곡이 주는 메인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가되 음악적인 색깔에서 에스파의 색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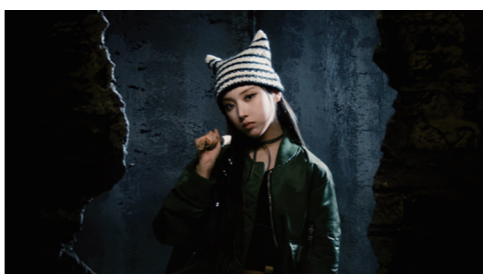
최근 SM에서는 5세대 보이그룹 '라이즈'가 밴드 이지의 '응급실'(2005) 샘플링한 '러브 원 나인(Love 119)'을 발표하기도 했다. 발라드인 원곡에서 인트로와 피아노 선율을 따라 맨

스곡으로 재탄생시켰다. 리메이크와 형식이 다르지만, 2000년대 곡을 조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SM은 "작곡진이 최초 데모부터 '응급실'을 샘플링한 것으로, 곡 작업 단계에서 한국에서 오래 사랑받고 있는 노래를 활용했다"며 "겨울과 잘 어울리는 분위기의 곡이고, 눈 내리고 추워진 요즘 날씨에 편하게 듣기 좋은 곡이기 때문에 선보이게 됐다"고 했다.

이외에도 보이그룹 'ATBO'(에이티비오)는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 SG워너비 김용준의 '머스트 헤브 러브(Must Have Love)'(2006), 보이그룹 '뉴이스트' 출신 솔로가수 백호는 박진영의 '엘리베이터'(1995), 보이그룹 'TIOT'(티아이오티)는 클리비의 '백전무패'(2001) 등을 선보이는 등 지난해 리메이크 작이 줄을 이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가요계 관계자는 "리메이크는 안정성이 확보된다. 대체로 리메이크되고 있는 곡들이 이미 히트했던 노래들"이라며 "트렌드는 달라져도 멜로디가 좋은 음악들은 시대를 타지 않는다. 리메이크는 그 자체로 화제의 요인이 되기도 해 수년 동안 흐름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리메이크를 두고 다양성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지만, 백호의 '엘리베이터'나 풀킴의 '화이트'(핑크 원곡) 등은 편곡을 통해 원곡과 차별화된 변주도 줬다. 세대를 넘게 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엔믹스, 신곡 '대시' 뮤비 티저 오늘 공개



그룹 '엔믹스(NMIXX)'가 강렬한 매력을 선보였다.

13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엔믹스는 공식 소셜미디어에 타이틀곡 '대

시(DASH)'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올렸다. '대시'는 엔믹스의 미니 2집 '에프이스티오프: 브레이크(BREAK)' 타이틀곡이다.

이번 티저는 그루비한 사운드 위 박진감 넘치는 비트와 함께 시작된다. 릴리(LILLY), 해원, 설윤, 베이(BAE), 지우, 규진은 벽을 부수거나 장난스러운 미소를 짓는 등 꾸러기 면모를 뽐냈다. 유니크한 그래픽 효과와 역동적인 화면 연출이 시각적 재미를 높이며 뮤비 완편을 향한 궁금증을 키웠다. 영상 말미에 등장한 퍼포먼스는 짧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다.

15일 오후6시 음원 사이트에서 공개된다.

에이티즈, 내달 28일 세번째 日 싱글 발표

그룹 '에이티즈(ATEEZ)'가 일본 싱글 3집 '낫 오케이(NOT OKAY)'를 내달 28일 발매한다.

13일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낫 오케이'는 에이티즈가 일본 싱글 2집 '리미트리스(Limitless)' 이후 약 1년 만에 발매하는 일본 싱글 앨범이다. 내달 29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낫 오케이' 발매 기념 쇼케이스도 연다.

앞서 에이티즈는 2022년 11월 일본 미니 3집 '더 월드 에피소드 패러다임(THE WORLD EP. PARADIGM)'을 발매하고 오리온 데일리·주간·주간 합산 앨범 랭킹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 재팬 핫 앨범과 주간 톱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도 정상을 석권했다.



에이티즈는 월드투어 '투워드 더 라이트 : 윌 투 파워(TOWARDS THE LIGHT : WILL TO POWER)'를 오는 27~28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연다. 내달 3~4일에는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무대에 오른다.

1990~2000년대를 지나온 이들이라면 최근 발표되는 곡들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할 것이다. 드라마, 영화, 예능에서 그 시절을 조망하는 것처럼 가요계에서도 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다.

그 중에서도 MZ세대의 중심인 아이돌들이 리메이크에 뛰어든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룹 '에스파'는 오는 15일 오후 6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1996) 리메이크 버전을 공개한다. 그간 서태지의 노래를 재해석한 가수는 성시경, 윤하, 수란, 헤이즈, 크리슈 등이 있다. 아이돌 그룹으로는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에스파는 걸그룹 최초로 서태지의 곡을 리메이크하게 됐다.

원곡은 당시 기록권에 대한 저항을 담은 적실적인 가사가 사전심의에 걸렸다. 이에 서